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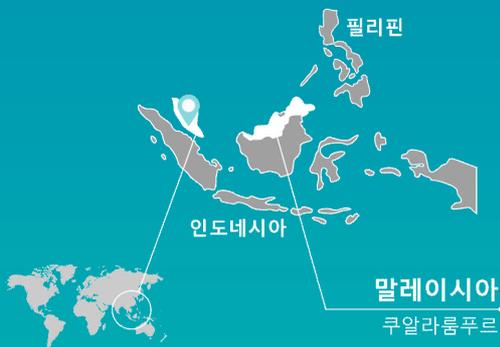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21년 8월 3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0천 km ² 	인구 33.4백만명 (2021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871억 달러 (2021 ^e) 	1인당GDP 11,604 달러 (2021 ^e) 	통화단위 Ringgit 	환율(U\$기준) 4.11 (2021 ^e) 

- 말레이시아는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그 중 11개 주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며, 2개 주(Sabah, Sarawak)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말레이계 및 원주민(부미푸트라) 62%, 중국계 21%, 인도계 6%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음.
-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팜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상위 중소득국이며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하여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해 기업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으나 코로나 19 발생 후 강력한 봉쇄조치가 장기간 실시된 영향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
- 2018년 취임한 마하티르 전 총리가 2020년 2월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이후 같은 당(PPBM)의 무히딘 야신이 신임 총리로 임명되어 새로운 여권연합(PN)을 구성하였음. 여권연합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의회 과반석을 차지하여 정책 결정력이 취약하며, 연합 내 갈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8,993,879	8,843,499	9,078,150	선박구조물, 반도체, 석유제품(경유 등), 합성고무
수 입	10,205,684	9,279,940	8,892,564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중유 등), 컴퓨터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957건, 5,677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e	2021 ^f
경제성장률	5.8	4.8	4.3	-5.6	6.5
소비자물가상승률	3.8	1.0	0.7	-1.1	2.0
재정수지/GDP	-2.4	-2.6	-2.2	-5.1	-4.4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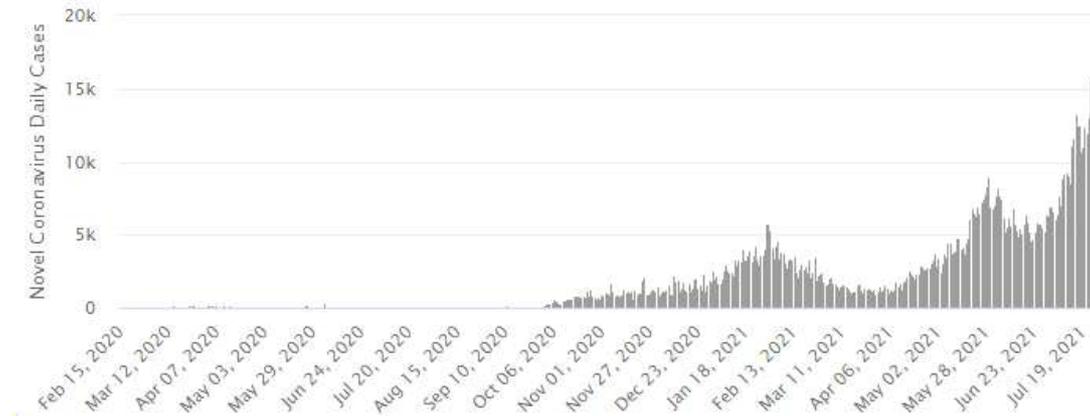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 영향으로 경제 회복속도 둔화 전망

-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18일부터 이동제한명령(Movement Control Order: MCO 1.0)을 두 달 이상 실시하였음. 이 기간 중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품 구입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전면 금지되고 대부분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활동이 급감함에 따라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7.1%를 기록하였음. 대부분의 봉쇄조치가 해제된 6월 이후 경제성장률은 3분기 -2.7%, 4분기 -3.4%로 다소 회복되었으며, 연간 -5.6%를 기록하였음.
 - 올해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0년 봉쇄조치의 충격이 해소되고 민간 투자·소비가 회복함에 따라 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동제한명령이 지속 실시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6월 1일부터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관은 말레이시아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World Bank 6.0% → 4.5%, IHS Markit 4.4% → -1.4%, ADB 6% → 5.5%)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올해 6~7.5%로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조만간 4% 내외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¹⁾.
 - 2020년 3~5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대체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여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으나, 10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쿠알라룸푸르 등 일부 지역에 대하여 2차 이동제한명령(MCO 2.0)을 실시하였음. MCO 2.0은 MCO 1.0에 비하여 경제활동은 폭넓게 허용되 지역 간 이동, 사적인 외출, 사회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은 제한하였음. 1분기 경제성장률은 -0.5%로, MCO 2.0 조치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MCO 2.0은 당초 2주 기한으로 시작되었으나 수 차례 연장되었으며, 5월 7일부터 5월 말까지 보다 강화된 3차 이동제한명령(MCO 3.0)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5월 25일부터 4일 연속 일일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6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적 봉쇄조치를 취하고 식품, 보건, 수도, 통신, 금융 등 17개 필수 업종만 운영을 허용하였음. 동 조치는 평가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4천 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여건이 갖춰져야 동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봉쇄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임.
- * 말레이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20.9월말) 89명 → ('20.12월말) 2,525명 → ('21.3월말) 1,485명 → ('21.6월말) 6,276명 → ('21.7월말) 17,786명

1) "Malaysia to Cut 2021 GDP Growth Outlook, Likely Close to 4%", Bloomberg, updated on July 12,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12/malaysia-to-cut-2021-gdp-growth-outlook-possibly-close-to-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내경제

말레이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자료: worldometers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2020년 3~7월 중 세 차례 기준금리 (Overnight Policy Rate)를 인하하는 등 연중 4차례에 걸쳐 총 1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후 금리를 유지하여 평가일 현재 기준금리는 1.75%로 역대 최저치임.
- 2020년 기준금리 변동: 3.00% → 2.75%(1월) → 2.50%(3월) → 2.00%(5월) → 1.75%(7월)
-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심화하고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BNM은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상승하겠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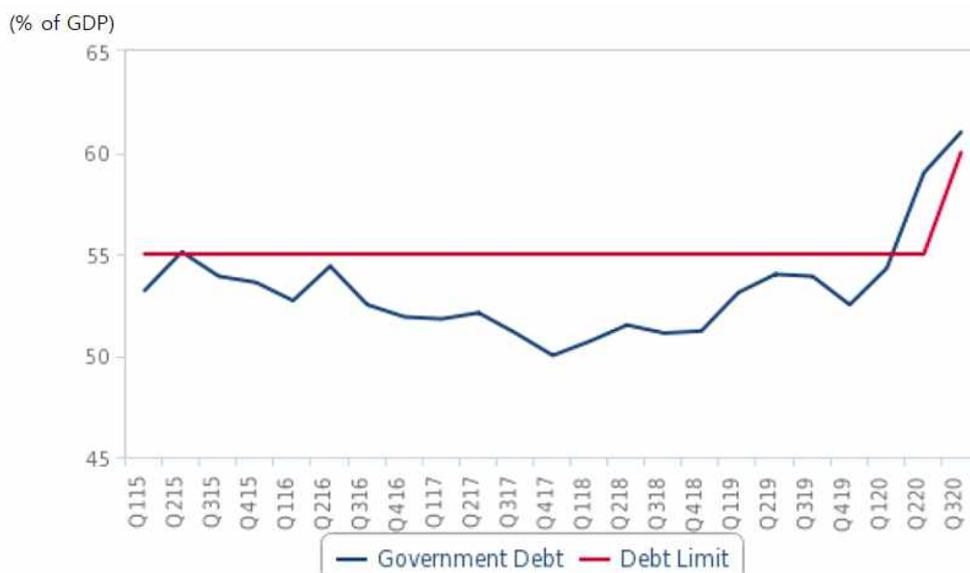
- 2020년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 중단과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3월부터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결과 연간 -1.1%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로 기저효과에 의해 2%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BNM은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5~4%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0.5~1.5% 범위의 억제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음. 이러한 물가상승률 안정은 BNM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함.

국내경제

재정수입 감소와 경기부양책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

- 2020년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입은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출 수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 관련 지출이 증가한 대신 경상지출을 감소시켜 전체 재정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1.1% 증가)을 기록²⁾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5.1%로 전년(-2.2%) 대비 악화되었음.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0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에 55%로 제한 하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한을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2020년 말 이미 62.2%로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였음.
-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수입 규모를 2020년 대비 4.2% 증가한 2,369억 링깃으로 예상하고 재정 지출 규모는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225억 링깃(약 806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4.4%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과 봉쇄조치 시행으로 당초 전망에 비하여 재정상황이 악화할 수 있음.
-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1년 예산안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42달러로 전제했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세(EIA, 2021년 브렌트유 전망 68.8달러/배럴)를 보이고 있어 2021년 재정수입 예상치의 16%를 차지하는 원유 관련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말레이시아 정부부채 추이 및 부채 상한(2015.1분기~2020.3분기)



자료: Fitch Solutions

2) "2021 Fiscal Outlook and Federal Government Revenue Estimates", MyGovernment, <https://www.malaysia.gov.my/portal/content/31055>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e	2021 ^f
경 상 수 지	8,960	8,026	12,296	14,848	17,617
경상수지/GDP	2.8	2.2	3.4	4.4	4.6
상 품 수 지	27,316	28,426	29,784	33,207	39,441
상 품 수 출	186,586	205,655	196,840	185,514	218,781
상 품 수 입	159,270	177,230	167,057	152,307	179,340
외 환 보 유 액	98,938	97,788	99,467	102,642	106,524
총 외 채	177,215	183,568	192,709	200,748	202,596
총외채잔액/GDP	55.5	51.2	52.9	59.4	52.3
D.S.R.	14.0	10.6	11.0	13.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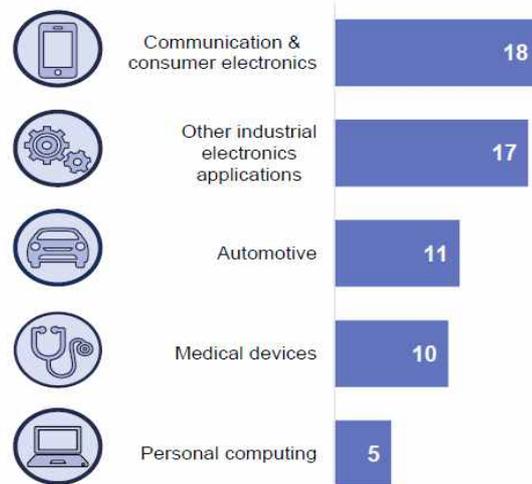
자료: IMF, EIU, OECD

다변화된 수출품목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전기·전자제품, 원유, 천연가스, 팜유, 천연고무 등 다변화된 수출품목을 바탕으로 매년 안정적인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거래를 위한 운송비 지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시현해 왔음.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통신 기기, 가전제품, 산업장비, 의료장비, 컴퓨터 등의 제품군에서 상당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 인텔, AMD, TI, NXP, 르네사스 등 50여 개 반도체 회사의 패키징·테스트 라인이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며 도요타, 혼다 등 다수의 일본 자동차업체 생산 공장도 위치해 있음. 말레이시아의 봉쇄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심화시키고, 완성차 업체의 생산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제조업 주요 품목 세계시장 비중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대외거래

- 2020년에는 세 달 가까이 지속된 MCO 1.0 조치 하에서 대부분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상품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에 따라 상품수입 또한 감소하고 운송비 지출 역시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확대되었음(GDP 대비 4.4%).
- 2021년에는 기저 효과에 더해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싱가포르,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의료용 고무장갑,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말레이시아의 주력 수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봉쇄조치 하에서 공장 가동률 하락, 운송 프로세스 지연 등으로 수출 증가는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수입 수요 역시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187억 링깃→123억 링깃)하여 GDP 대비 3.3%를 기록하였음. 이는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 운송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에 기인함.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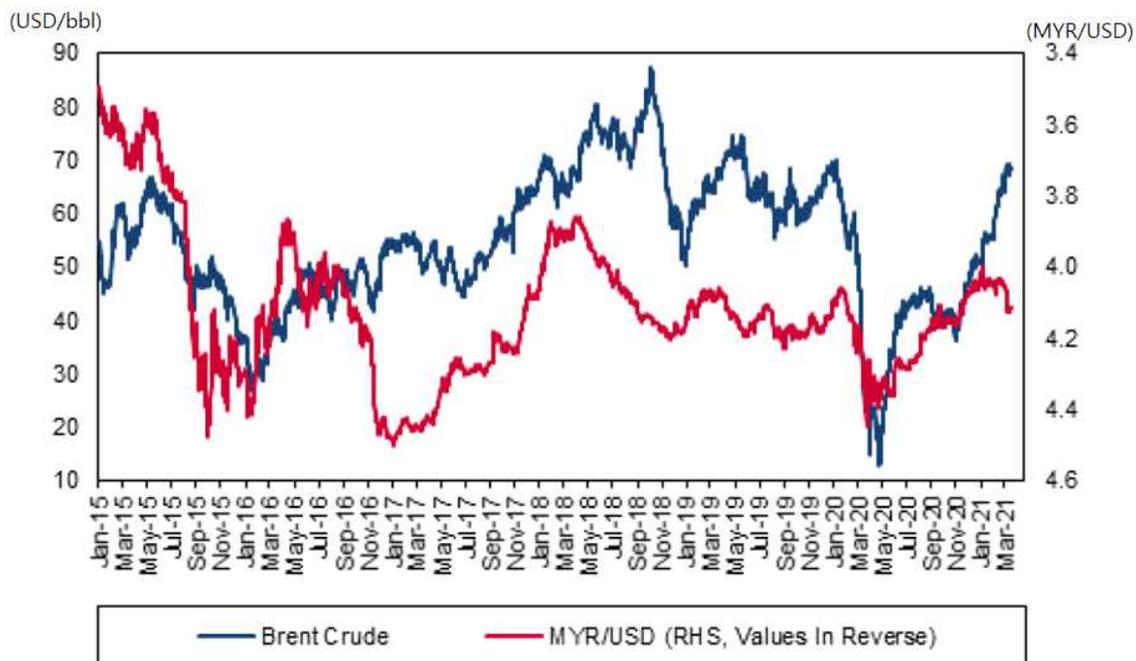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한 상태이나, 70% 이상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만기 구조가 안정적이며 대외거래가 활발하여 2020년 기준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91%, D.S.R 13.5%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낮은 편임.
- 외채규모가 과중하여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표시된 대외채무도 외채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시 실제 외채상환능력은 외채규모에 비하여 양호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말 기준 정부 외채의 약 90%가 링깃화 표시 부채임.

구조적취약성

원유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이 경상수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정수입의 약 20%를 원유 관련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변동이 재정 건전성과 경기부양 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재정수입에서 원유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20년 기간 중 평균 20.7%이며, 2021년 예산안에서는 16%를 구성하고 있음. 2020년의 경우 유가 급락이 재정여력을 저해하였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가 예산안에서 가정한 유가 수준을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요인임.
- 또한, 링깃화의 가치도 대체로 국제유가와 연계되어 국제유가 상승이 링깃화 강세를 견인하는 경향이 있음.

국제유가와 링깃화 환율 추이(2015.1월~2021.3월)



자료: Fitch Solutions

인근 ASEAN 주요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 보유

-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적어 (3,340만 명) 경제규모 확대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으며, 특히 ASEAN-5 국가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중 인구가 가장 적어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2.8억 명), 필리핀(1.1억 명), 베트남(1억 명), 태국(7천만 명)³⁾ 등 인근 주요국들의 인구 규모는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3) CIA World Factbook(Population, July 2021 est.)

성장잠재력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천연고무와 팜유가 풍부하여 세계 주요 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여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
-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의 팜유(palm oil) 수출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34.3%를 차지하고 있음.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 기름으로 식품 외에도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20년 기준 천연고무의 세계 4위 수출국이면서 의료용 고무장갑의 세계 시장 67%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용 장갑 수요가 급증하였음.
- 에너지 자원의 경우, 원유 생산량은 2020년 기준 1일 59.6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7%, 매장량은 27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0.2%에 해당해 절대 보유량은 많지 않으나 원유 순수출국임. 또한 2020년 기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0.5%,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6.7%를 차지함.⁴⁾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 보유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0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상품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⁵⁾하는 등 제조업이 주요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팜유, 천연고무 등 농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 경쟁력도 양호함. 아울러 원유,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광업도 발전하여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GDP 구성 비중: 서비스업 57.7%, 제조업 22.9%, 농업 7.4%, 광업 6.8%, 건설업 4.7%

정책성과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여건 양호

- 말레이시아의 사법 제도는 영국보통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국제투자분쟁 조정기구(ICSID)를 통한 국제분쟁 조정을 허용하는 등 상업 문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가 외국인 자산을 몰수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장기간 지속하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2019년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27위의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공공 부문 규제 및 효율성 부문에서 8위, 재산권 부문 14위, 기업 운영 부문 5위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부 규제, 권리 보호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여건이 양호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2위로 매우 양호함.

4) BP p.l.c.,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5) Fitch Solutions, "Malaysia Country Risk Report(Q3 2021)"

정책성과

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 추진

- 2019년 10월 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10년 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공동번영 비전 2030은 '모두를 위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단결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3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2030년 GDP 목표를 3조 4,000만 링깃로 설정하였음(2019년 GDP: 1조 5,107만 링깃).
- 이번 비전은 3개 핵심 과제 아래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 확대, 첨단산업 비중 확대, 고숙련 노동자 양성, 차별 없는 노동시장 조성, 지역 간 소득격차 축소 등의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하였음. 한편, 제시된 GDP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평균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전제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를 감안시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봉쇄조치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 추진, 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

- 2021년 들어 코로나19가 거듭 확산하고 봉쇄 조치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쳐 2,250억 링깃(2020년 GDP의 15.9%)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노인층 등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가계 전기요금 할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흐름 지원, 은행 대출만기 자동 연장(6개월) 등 봉쇄 조치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정부의 지출행위를 수반하는 정책은 일부분이긴 하나,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정치안정

여당연합의 의회 장악력 부족 및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불안 계속

- 2018년 5월 취임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2020년 2월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마하티르 전 총리와 같은 말레이시아원주민당(PPBM 또는 Bersatu) 소속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무히딘 야신이 3월 1일자로 총리로 임명되었음. 야신 총리는 소속정당 PPBM을 연립정부인 희망연대(PH)에서 탈당시켰으며, 이에 반발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사퇴 후 새로운 연립정부 수립 및 총리 재취임을 노렸으나 무산되었음.
- 야신 총리는 PPBM 외에 기존에 야당이었던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등과 연립정부인 국민연합(PN)을 구성하여 하원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였음. 총선을 통해 집권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취임 초기부터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여당연합의 의석 수가 전체 하원 의석(222석)의 과반을 2석 초과하는 113석에 불과하여 정책 추진력이 취약한 데다 단기간에 연정을 구성하여 결속력이 약함. 특히, 연합 내 최다의석 정당인 UMNO(36석)가 최근 총리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 불안이 가중되었음.

말레이시아 의회 정당별 의석수 및 지지기반



자료: Benar News, Reuters

- 2021년 3월 UMNO는 다음 총선(2023년 5월 예정)에서는 PPBM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의 연립정부에는 잔류하였음. 그러나 7월 8일 UMNO 총재는 야신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총리직 사임을 촉구하였음. PPBM과 UMNO가 모두 親말레이계 정당으로 정치적 기반과 지향에 큰 차이가 없어 차기 총리도 이 두 정당 중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재의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함.
- 2021년 1월 12일, 국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비상사태(8월 1일 限)를 선포하였음. 이는 야신 총리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의회 활동, 지방선거 등 모든 정치 활동이 정지되고 국회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하게 됨. 이에 대해 연립정부 동맹 간 관계가 악화돼 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야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국왕과 야당, UMNO 등은 야신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의회를 조기 재개하라고 압박을 가해 왔음. 이에 7월 26일부터 5일 일정으로 의회가 임시 개최되었으나, 이번 임시 의회의 의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제한됨.

- 7월 29일 국왕은 야신 총리가 국가비상사태 기간 중 발표한 조례를 일괄 철회한 것에 대해 국왕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야당은 즉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국가비상사태 종료 다음날인 8월 2일 의회에서 불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의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다며 의회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회를 2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음.
- 7월 31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총리 사임을 요구하며 시내를 행진하였으며, 야당 의원들은 의회 개회 연기에 대하여 8월 2일 항의 행진을 계획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음. 야신 총리의 취임 이래로 이어져 온 정치 불안이 고조되며, 총리 실각 또는 사임 및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사회안정

부미푸트라(말레이계 및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통칭하는 부미푸트라(62%)와 중국계(21%) 및 인도계(6%)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음.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하여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
- 1969년 5월 10일 총선에서 말레이계·인도계·중국계 기반 민족정당 3당이 연합한 여당연합이 부진한 성과를 내자 그간 누적된 민족 간 갈등이 표출되며 말레이계와 중국계 주민 간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5월 13일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당시 총리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듬해 사임하였으며, 정부는 말레이계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1971년부터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실시해 왔음.
-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은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 실시 및 학비 할인, 기업이나 관공서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부미푸트라 직원 고용 의무, 기업 상장시 지분의 12.5% 이상을 부미푸트라 투자자에 할당, 택지 개발시 입주 물량의 30% 부미푸트라 앞 할당 및 특별 할인 제공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부미푸트라에 특혜를 주고 있음. 이러한 우대 정책이 말레이계의 교육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 인도계와 중국계 주민들은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이 도입되던 때에 비해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는데도 우대 정책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일부 말레이계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임. 2018년 정부가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비준을 준비하고 부미푸트라 정책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ICERD 비준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Bumiputera Prosperity Council)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5월 야신 총리 주재 하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위원회는 '공동번영 비전 2030'의 일부로,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음.
- 부미푸트라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당연합 내 양대 정당인 PPBM과 UMNO가 모두 말레이계 정당을 표방하고 있어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예방조치 지속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6월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쿠알라룸푸르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 사건 이후 IS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 및 체포 활동을 지속하는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그 뒤 추가적인 테러 사건은 발생한 바 없음.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19년 7~9월 중 IS의 영향을 받아 정치인 등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한 16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체포한 바 있으며, 정부는 IS 가입을 목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음.

시위·소요 사태가 드물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으나, 노동자의 권리는 취약한 편

- 말레이시아에서 시위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의 시위는 야당 측이 정부의 종교·민족 정책을 문제삼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광장이나 경기장에서 비폭력적으로 진행됨.
- 평가일 현재 국·공립병원 계약직 의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음. 국·공립병원 의사의 약 45%가 계약직으로,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른 격무와 함께 고용 불안, 수련 기회 부족 등에 대한 그간의 불만이 표출되었음. 야신 총리는 계약직 의사들의 고용 기간을 4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계약직 의사 그룹은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인 데다 임기응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7월 26일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엄격한 노동 규제로 노조의 동정파업과 불법 해고 관련 분쟁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파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함. 또한 노동부가 근거 없이 노조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등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에 의한 파업이나 시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함. 말레이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동자의 6%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2021년 6월 Moody's는 ESG 요소가 말레이시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세계적인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움직임에 따라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원유 관련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업, 벌목 및 팜유 농장 확장에 따른 산림 파괴에도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질의 교육, 주택, 보건 및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소득 하위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상당 부분 상쇄하여 사회(Social)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견고한 행정 및 입법 제도,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 오랜 기간 지속된 효율적인 거시경제 정책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다양한 대외협력관계 유지

- 비동맹 중립정책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하며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총 7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및 OIC(이슬람협력기구)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2019년 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개시하였음.
- 미국과는 반테러 활동과 지역 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며 경제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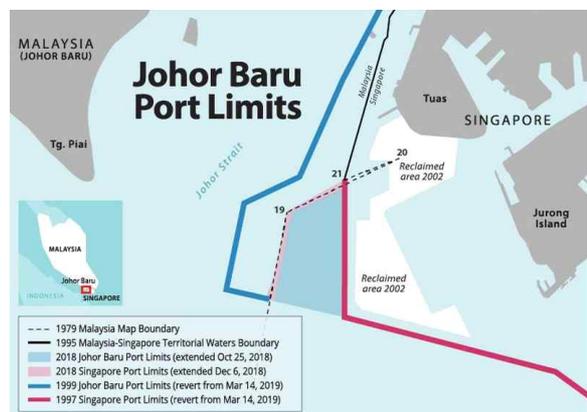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인근의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 지대를 중심으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2020년 5월 말레이시아 감사원은 2016~2019년 중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군 선박이 총 89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의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또한 2021년 6월에는 중국 군용기 16대가 동말레이시아 인근 영공을 편대 비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다만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남중국해 분쟁 관련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으며 말레이시아는 외교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암발라트 해역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해당 분쟁 해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양국은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해군을 파견하였음. 양국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양국 사이에 위치한 조호르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왔으며,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조호르 해협 인근 조호르 바루 항의 포트 리밋(Port Limit, 선박 운항 등 관할권 행사 구역)을 일방적으로 확장하자 싱가포르는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근 투아스 항의 포트 리밋을 확장하는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상선 운항이 제한될 위험이 높아졌으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암발라트 해역 분쟁지역 지도



자료: Jakarta Post

조호르 해협 분쟁지역 지도



자료: Malay Mail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 없으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2021년 3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66.8억 달러(단기 18.9억 달러, 중장기 47.9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20만 달러)으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2021.06)	2등급(2020.06)
Moody's	A3 (2021.01)	A3 (2018.12)
Fitch	BBB+(2020.12)	A- (2020.04)

양호한 투자적격등급을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말레이시아는 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입 기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 이력,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금융 부문과 신뢰성 있는 규제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유지해왔음.
-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중 Fitch는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하락, 경기부양책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였음. 이어서 12월 Fitch는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미 높은 수준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대응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평가등급을 종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자원, 다변화된 산업 발전, 양호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등 경제적 강점이 여전히 유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예전의 성장 경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조치를 재 실시함에 따라 당분간 성장률 회복이 늦춰지고 재정건전성이 추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 등급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경제는 다변화된 산업 발전, 풍부한 부존자원, 시장친화적인 제도 구축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간 4~7%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조치,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5.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6%대 경제성장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 재실시로 경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음.
-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말레이시아 국왕은 야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반 년 이상 모든 정치 활동이 정지되고 행정부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였음. 이에 대해 야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여당연합 내 최다 의석 정당이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한 상태이나, 70% 이상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만기 구조가 안정적이며 대외거래가 활발하여 2020년 기준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91%, D.S.R 13.5%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낮은 편임.